

#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남혜리<sup>1</sup> · 김민경<sup>2</sup>

<sup>1</sup>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sup>2</sup>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Hye Ri, Nam<sup>1</sup> · Min Kyung, Kim<sup>2</sup>

<sup>1</sup>Catholic Sangji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sup>2</sup>Catholic Sangji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Visiting Professor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gure out the career identity, the learning motivation and the communication skill that have influence up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Methods** : The sample consisted of 267 students who were recruited from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in A cit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self-administered from March 4 to March 31, 2021.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WIN 21.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actors of career identity( $\beta = .34, p < .001$ ) and learning motivation( $\beta = .15, p = .026$ ), communication skill( $\beta = .19, p = .008$ ) had the positive impact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total explanatory power accounted for 35.8%. **Conclusions** : It was found that the career identity, the learning motivation and the communication skill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up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order to enhance the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al intervention that strengthens the career identity and the learning motivation and improves the communication skill.

**Key words** : Career Choice, Motivation, Communication,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 전문인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간호의 질 향상과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게 한다[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포함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을 의미한다[2].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사명감을 갖고 간호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전문직관이 필요하다[1]. 전문직관이 긍정적인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3-4]. 간호전문직관은 학교 교육과 지속적인 개인의 직업 생활을 통하여 발달하며,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학의 정체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간호학과 교육 과정에서 받은 경험을 통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확장된다[5].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졸업 후에도 본인의 간호업무 현장에서 간호의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6]. 간호전문직관은 직무 및 진로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며 간호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 간호직에 대한 소명감과 자신감 및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7], 개념 형성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난 속에서도 높은 취업률로 인해서 간호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지만[8], 간호 분야에 대한 진로 고민과 진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선택한 전공과 취업은 조기 이직률에 영향을 미친다[9-10].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은 간호학

과 교육을 받는 동안 진로와 발달과업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적응도 향상시켜 줄 것이다[11]. 진로정체감은 스스로가 갖고있는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와 직업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추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진로정체감으로 간호대학생 시기에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취업유지 및 이직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8]. 또한,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능력이나 조직 적응능력,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8]. 적절한 진로정체감이 형성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에 기초해 호기심과 적성 흥미에 맞는 진로를 생각하게 되고, 학업 성취동기가 분명해짐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해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12]. Csikszentmihalyi[13]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학습에 대한 몰입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증진 시킨다고 했다.

학습동기는 학습활동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학습활동으로부터 학습의 이득을 얻기 위한 노력, 또는 학습목표를 성취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학습을 가능하도록 한다[14]. 성공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학습동기이며 이는 학습자 스스로가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최종적으로 훌륭한 간호 인재로 배출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15].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직종 및 환자,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은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의 기본 핵심역량이다[17].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1],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직종 및 환자, 보호자 등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수단이다[17]. 간호는 대상자와의 상호작

용에 기반을 둔 전문적인 돌봄 과정으로, 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 수행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환자 및 보호자, 혹은 조직 구성원의 협동과 갈등 해결을 위한 능력으로 간호 업무성과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1].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및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이고 더 높게 나타났다[1,6]. 또한, 전공만족도와 학업 스트레스,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1], 진로정체감[6],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3]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간호대학생의 학업 및 역량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습동기, 의사소통 능력 및 진로정체감과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5]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임상 간호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간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진로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형성 정도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Ⅱ.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소재한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에 한해서 온라인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를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 효과크기 0.1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38명이었으나,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진로정체감

Holland, Diger and Power[18]이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직업 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중 하위 척도인 진로정체감 검사 18문항을 Kwon과 Kim[19]이 수정·보완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1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모든 문항이 부정문항으로 역 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2)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Kim[20]이 개발한 학습동기 척도를 Chang[21]이 수정, 보완한 1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외적동기(8문항), 내적동기(5문항), 계속동기(3문항), 수업동기(3문항)로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의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ng[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Hur[22]가 개발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해 Yeun 등[23]이 개발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인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A시에 소재한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03월 04일부터 03월 31일 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URL을 제공하여, 연구대상자가 직접 설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 및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과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작성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26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전임교수가 아닌 연구자가 연구 시작 전에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방법 및 작성소요시간 등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사이트에 접속 후 연구 설명문과 연구 참여 연구 동의서에 동의를 한 경우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작성 중 언제라도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 다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참여한 경우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및 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사용하였고, 사후검

중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3)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77.2%(206명), 남성 22.8%(61명)으로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연령은 20세 이하 60.3%(161명), 21세 이상 26세 이하 24%(64명), 26세 이상 15.7%(42명)였고, 평균 연령은 22.05±3.81세였다. 학년은 1학년

77.2%(206명), 2학년19.1%(51명), 3학년 3.7%(10명)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는 37.5%(100명)이었다.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긍정적이다 85%(227명), 보통이다 13.9%(37명), 부정적이다 1.1%(3명)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진학 동기로는 적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77.9%(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 등 주변의 권유가 11.2%(30명), 취업률 때문에 선택한 경우 10.9%(29명)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진로정체감은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학과 입학 동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사의 이미지가 보통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가 진로정체감이 높았고 ( $F=10.56, p<.001$ ), 간호학과 입학 동기가 적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취업률 때문에 선택한 경우와 부모님 등 주변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보다 높았다( $F=27.79, p<.001$ ). 학습 동기는 간호학과 입학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님 등 주변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보다 적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n(%)	Career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ex	Female	206(77.2)	4.16±.50	1.29	4.04±.52	1.79	4.00±.47	1.32	3.70±.34	0.64
	Male	61(22.8)	4.06±.55	(.195)	3.90±.50	(.074)	3.90±.51	(.189)	3.67±.41	(.519)
Age(yr)	≤ 20	161(60.3)	4.13±.47	0.99 (.369)	3.92±.49	5.37 (.005)	3.99±.44	0.527 (.591)	3.71±.33	0.29 (.748)
	21 ≤ X ≤ 26	64(24.0)	4.09±.64		4.12±.54		3.92±.56		3.66±.37	
	≥ 26	42(15.7)	4.23±.43		4.15±.52		4.00±.54		3.70±.41	
Grade	1st	206(77.2)	4.11±.51	1.72 (.180)	3.94±.52	6.31 (.002)	3.96±.48	.839 (.433)	3.70±.34	.82 (.438)
	2nd	51(19.1)	4.25±.53		4.23±.41		4.06±.43		3.63±.39	
	3rd	10(3.7)	4.24±.51		4.13±.55		3.95±.64		3.75±.41	
	4th	—								
Religion	Yes	100(37.5)	4.15±.57	0.27	4.02±.53	0.36	3.98±.51	0.15	3.71±.43	.53
	No	167(62.5)	4.13±.47	(.786)	3.99±.51	(.713)	3.97±.47	(.881)	3.68±.30	(.592)
Nurse image	Positive <sup>a</sup>	227(85.0)	4.19±.47	10.56	4.01±.51	0.56 (.571)	4.03±.46	10.45	3.73±.52	9.48
	Middle <sup>b</sup>	37(13.9)	3.84±.60	(<.001)	3.96±.53		3.66±.52	(<.001)	3.47±.31	(<.001)
	Negative <sup>c</sup>	3(1.1)	3.50±.56	a>b	3.75±.16		3.66±.66	a>b	3.55±.33	a>b
Entrance motivation	Consider aptitude <sup>a</sup>	208(77.9)	4.25±.44	27.79	4.07±.49	7.98	4.03±.45	7.48	3.72±.35	2.63 (.074)
	Employment rate <sup>b</sup>	29(10.9)	3.82±.57	(<.001)	3.86±.53	(<.001)	3.87±.61	(.001)	3.57±.32	
	Others solicitation <sup>c</sup>	30(11.2)	3.66±.48	a>b>c	3.71±.52	a>c	3.69±.49	a>c	3.63±.37	

선택한 경우가 높았다( $F=7.98, p<.001$ ). 연령( $F=5.37, p=.005$ )과 학년( $F=6.31, p=.002$ )에 따라서도 학습동기에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학과 입학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사이미지가 보통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F=10.45, p<.001$ ). 간호학과 입학 동기가 부모님 등 주변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보다 적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선택한 경우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았다( $F=7.48, p=.001$ ).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간호사 이미지가 보통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9.48, p<.001$ ).

## 2.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진로정체감(4점 만점)  $3.14\pm0.51$ 점, 학습동기(5점 만점)  $4.01\pm0.03$ 점, 의사소통능력(5점 만점)  $3.98\pm0.03$ 점, 간호전문직관(5점 만점)  $3.69\pm0.41$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하부영역을 분석한 결과 간호의 독자성이  $4.63\pm0.55$ 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자아개념  $4.32\pm0.45$ 점, 간호 실무역할  $4.29\pm0.55$ 점, 간호의 전문성  $4.09\pm0.62$ 점, 사회적 인식  $3.39\pm0.63$ 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s of Career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Nursing Professionalism

Variables	M±SD	Min	Max
Career identity	$3.14\pm0.51$	1.50	4.00
Learning motivation	$4.01\pm0.03$	2.63	5.00
Communication skill	$3.98\pm0.03$	2.67	5.00
Nursing professionalism	$3.69\pm0.41$	2.67	4.56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32\pm0.45$	2.83	5.00
Social awareness	$3.39\pm0.63$	1.00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9\pm0.62$	2.00	5.00
The role of nursing service	$4.29\pm0.55$	2.50	5.00
Originality of nursing	$4.63\pm0.55$	1.00	5.00

## 3.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 $r=.58, p<.001$ ), 학습동기( $r=.44, p<.001$ ), 의사소통능력( $r=.50,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진로정체감( $r=.54, p<.001$ ), 학습동기( $r=.62, p<.001$ )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습동기는 진로정체감( $r=.48,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Dubin Watson 지수가 2.086이므로 종속변수는 독립적이며, 공차한계의 범위가 0.53~0.66으로 0~1사이였고, VIF는 1.50~1.88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간호사 이미지 변수를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진로정체감( $\beta=.33, p<.001$ ), 학습동기( $\beta=.15, p=.018$ ), 의사소통능력( $\beta=.17, p=.014$ )요인이 확인되었고,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B=0.24$ ),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B=0.11$ ),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B=0.13$ )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5.2%이다. 진로정체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29.88, p<.001$ ).

**Table 3.** Correlations among Career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Identity $r(p)$	Learning Motivation $r(p)$	Communication Skill $r(p)$	Nursing Professionalism $r(p)$
Career Identity	1	.48(<.001)	.54(<.001)	.58(<.001)
Learning Motivation		1	.62(<.001)	.44(<.001)
Communication Skill			1	.50(<.001)
Nursing Professionalism				1

**Table 4.** Predictors of Variance in Nursing Professionalism

Variables	B	SE	$\beta$	t	p
Career Identity	.24	.04	.33	5.46	<.001
Learning Motivation	.11	.05	.15	2.38	.018
Communication Skill	.13	.05	.17	2.47	.014
Nurse image <sup>+</sup> (positive)	-.06	.17	-.06	-.35	.722
Nurse image <sup>+</sup> (Middle)	-.19	.17	-.18	-1.08	.278
Adj. $R^2=0.35$ , $F=29.88$ , $p<.001$					

<sup>+</sup>Dummy variable : Negative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이들 변수 간에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3.14점으로 동일한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와 Lee[8]의 2.67점, Lee와 Jang[24]의 2.47점, Nam[25]의 2.9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전공만족도, 성적, 입학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22]고 하였는데, 전공 교과를 배우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대학 생활 및 진로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간호대학생들의 개인적인 상황 변수들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대상자 표본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진로정체감은 졸업 후 취업과 적응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인[23]으로 간호학과 진학을 결정한 간호대학생

이 4년 동안 많은 양의 간호지식에 대한 이론과 임상실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진로정체감에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관리 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는 4.01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등[15]의 3.49점, Lim[26]의 3.14점보다 높았고, Han[27]의 4.12점보다는 낮았다. 선행연구에서 학습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연구간 일치하는 항목이 없었으며[15,24-25], 연구의 대상자를 간호학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와 달리 Han[25]의 경우 간호학과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 연구의 경우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학년 학생들이 7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학습동기의 정도를 비교하고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동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간호대학생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성과를 향상시켜준다[26]. 따라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전공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3.98점으로 Yeom[17]의 3.71점, Kim와 Lee[28]의 3.8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및 교내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17], 본 연구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실습 상황 등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소통능력을 높게 평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할 경

우 학업에 대한 동기 상실, 임상수행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17],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의사소통 강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3.69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이는 Yeom[17]의 3.67점과 Song과 Kim[6]의 3.63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에서는 간호의 독자성,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실무역할, 간호의 전문성, 사회적 인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적 인식영역이 낮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6, 17]와도 유사한 결과로 간호직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및 강화가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과 Chun[29]의 연구에서 간호의 독자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간호의 독자성 영역이 높게 나타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존하는 간호가 아닌 간호대상자를 위한 전인적이고 독립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교육 과정의 지속적인 발전 및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결과와 달리 Song과 Kim[6]과 Yeom[17]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독자성에 대한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6, 17, 29]마다 하위요인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하다[6]고 하였는데, MZ세대의 특성 및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에 대한 신념과 견해를 확인하고, 간호직의 전문화를 위하여 간호 활동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함으로써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입원 병동 등 다양한 곳에서 고군분투 하고있는 간호사의 이야기들이 다중매체를 통해서 자주 노출되고는 있지만, 전문직으로서의 독자성, 전문성을 높여주지는 못한 결과로 간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

통능력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1, 6, 17]는 본 연구의 결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와 간호전문직관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업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지와 개인 능력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5.2%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정체감으로 Song과 Kim[6]의 결과와 일치한다. 진로정체감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에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으며[1],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적응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6].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학습동기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 학습동기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Lim[26]의 연구에서 학습동기가 높으면 전공만족도가 높고,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나타낸다[24]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Geiger와 Davit[30]은 간호전문직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으로 발달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 교육과 조직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론 및 실습 간호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원동력인 학습동기의 강화는 학습효과 및 전공만족감 증진을 통해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게 한다[5].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직에 대한 정체감 형성 및 확립,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학습자 자신의 학습동기 향상 및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고 있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간호업무 성과



및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짐에 따라[3]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 전문직관은 환자간호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의 질 향상과 간호직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간호 전문직에 대한 인식과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진로정체감과 학습동기,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관계 및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에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향상 시키고, 의사소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 학생을 임의 표집하여 추출하였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하기 위한 진로정체감 및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강화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와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Woo JH, Song JH.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20;18(4):101-110. DOI : 10.22678/JIC.2020.18.4.101
2.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3. Han SS, Kim MH, Yung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4. Hallin K, Danielson E.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8;61(1):62-70. DOI : 10.1111/j.1365-2648.2007.04466.x
5. Geiger JWK, Davit JS.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1988;19(12):50-54.
6. Song JH, Kim HJ.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0;10(9):102-110. DOI : 10.22156/CS4SMB.2020.10.09.102
7. Han SH. The Effecting Factors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 8(12):353-363. DOI : 10.35873/ajmahs.2018.8.12.034
8.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6;20(2):163-173.
9. Jang TJ, Moon MK.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 2016;22(4):344-352.  
DOI : 10.11111/jkana.2016.22.4.344
10. Choi E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9; 15(1):15-21. DOI : 10.5977/JKASNE.2009.15.1.015
11. Noh GO. Influence of stress coping strategy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2018;6(1):25-34.  
DOI : 10.17333/JKSSN.2018.6.1.25
12. Kim MN. Effects of career exploring program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and occupational interests. [master's thesis]. Seoul: Sung Kyun Kwan University; 2001.p.1-65
13. Csikszentmihalyi M. Literacy and intrinsic motivation. *Daedalus*. 1990;119(2):115-140.
14. Han SM.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ademic motivation variables,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4;18(1):329-350.
15. Lee JK, Lee JG, Kim WJ.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commitmen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020;24(2):41-48. DOI : 10.38083/JKNS.2020.24.2.041
16. Oh HS. Influence of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8):311-321. DOI : 10.14400/JDC.2017.15.8.311
17. Yeom EY.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4):320-330.  
DOI : 10.5392/JKCA.2017.17.04.320
18. Holland JL, Gaiger DC, Power PG.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y Press. 1980.
19. Kwon YH, Kim CN.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2;13(2):216-229.
20. Kim YR.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A)&School-Related Coping Scale(B) and Relations Between (A)&(B). *Hongik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00;17:3-37.
21. Chang EH. Effects of self-evaluation using video recording method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y in basic nursing skills, satisfaction levels, learning motivations during open laboratory hours : focusing on foley catheterization. [master's thesis]. Seoul: Eulji University; 2015. 1-69
22.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23.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 1091-1100.
24. Lee AR, Jang HJ.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0;22(6):2427-2442. DOI : 10.37727/jkdas.2020.22.6.2427
25. Nam HR. Effects of family health, self-respect, and resilience elastic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2021;6(2):1-6. DOI : 10.31152/JB.2021.05.6.2.1
26. Lim JH.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 Analysis Society. 2014;16(4):2273-2284.
27. Han SJ. The effect of introductory education on the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f nursing department new to the department of nursing. Academic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2013;5:119-119
28. Kim YJ, Lee YM, Effect of knowledge, confidence, and communication skill for fundamental nursing with empowering communi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18(5):2817-2827.
29. Kim MS, Chun LS.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Health & Nursing. 2011;45:29-44.
30. Geiger LWK, Davit JS.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 Manage. 1988;19(12):50-54.
-